



특집

- ▶ 충주고 개최, 북부 수학 축제
- ▶ 충주고 부흥과 새 교감선생님

학교 소식

- ▶ 1학년의 한라산 정복
- ▶ 미래 기술자,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

오피니언 7면

- ▶ [칼럼] 불매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 ▶ [사설] 세계화와 한글 이용

즐거웠數 느꼈數 배웠數 북부 수학 축제



▲ 로봇체험을 담당한 학생들



▲ 과학부스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

지난 9월 21일 충주고 등학교 교내와 호암지 일대에서 제 4회 충북북부수학축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였고 '수학, 미래를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충북 북부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수학체험부

스 58개가 운영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수학을 이용한 디자인이나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수학의 원리를 이용한 것, 피타고라스, 외비우스 같은 수학자가 발견한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고, 충주고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정삼각형 접기를 사용해 만든 간단한 금단청 모양인 소슬금을 이용한 손

거울 만들기 외에도 수학이름 만들기, 헤수 타일링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시계제작, 드론비행 및 영상촬영 기법, 메탈파이터, 전기자동차 등이 있다.

또 수학을 원리로 한 수학 마술, 드론 체험, 카프라, 도미노, 스틱밤을 이용한 수학놀이마당과 수학공부법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리고 충주고 밴드

부의 공연과 송학중 난타팀의 공연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충주고 학생들의 열띤 봉사활동으로 북부수학축제는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북부수학축제에서 드론비행 및 영상촬영 기법 프로그램에 운영을 맡은 정인성 학생은 비가 와서 잘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과 운동장을 잘 활용하

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을 전하였다. 축제 중간에 비가 내려서인지 '호암지로 떠나는 수학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못 하였다. 이번 축제로 인해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자연을 수학적 눈으로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자연과 실생활에 담겨진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이진우, 유준상 기자



르네상스의 지원자 교감선생님



우리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이상인 교감선생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다. 본지는 새로 부임하신 교감선생님의 인사말과 다짐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한다.

학생기자 (이하 '학') :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실까요?

교감선생님(이하 '교') : 저는 9월 1일자 충주고 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한 이상인입니다. 1989년 9월에 교사로 첫걸

음을 시작하여 2013년 8월까지 23년간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3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교육청 장학사, 단재교육연수원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6년간 근무하다가 이번에 충주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 : 충주고에 부임하시며 남다르게 가지셨던 다짐이 있을까요?

교 : 저는 교사성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결

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학교의 목표인 '최고 최선 최대' 처럼 충주고 여러분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학생들을 만나보신 첫 소감은 어떠하나요?

교 : 밝고 활기찬 학생들을 보며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생활하는 좋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학생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희망

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직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학 : 마지막으로 학생,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실까요?

교 :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꼬아야 한다는 뜻으로 서로 합심하여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처럼 학생은 자신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모두 함께 성공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준, 권오성 기자

아쉬운 작별의 시간



▲교육에 힘쓰신 유호일 선생님



▲예성여고로 떠나시는 이춘형 교감선생님



▲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박성규 선생님

지난 8월 23일, 본교 운동장에서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교직을 떠나시는 두 분의 선생님과 교장으로 승진하셔서 우리 학교를 떠나시게 된 교감선생님을 위한 송별식이 있었다.

퇴임식의 주인공은 박성규 선생님과 유호일 선생님이 두 분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떠나시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오

랜 시간 본교를 위해 노고를 다하신 두 분께 진심을 담아 축하와 아쉬움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해드리며 교정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쁨으로 채워드렸다. 두 분은 모두 충주고를 졸업하신 선배님들로서 어린 시절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와 이곳에서 오랜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셨다. 두 분은 교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떠나실 수 있게 되어 이 날이 갖는 의미가 그 어느 날보다도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임식의 주인공은 교무를 총괄하시던 이춘형 교감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께선 교장으로 승진을 하시게 되어 근처 예성여고로 발

령받아 충주고를 떠나시게 되었다. 학교의 발전에 힘써주신 교감선생님께 학생들은 아쉬움의 인사를 전했다. 승진에 있어서는 축하드릴 일이지만 본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선생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교감선생님께선 학생들에게 항상 학업에 정진하여 충주고의 영광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셨다. 학생들은 세 분의 선생님을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하였다. 오랫동안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세 분의 선생님들은 아쉽게도 이 학교를 떠나게 되셨지만 그 분들이 이뤄놓으신 아름다운 본교의 모습은 학생들의 가슴에 남아 영원히 기억되리라 생각한다.

- 정석현 기자

미래에 한 발 다가가는 피지컬 컴퓨팅



▲ 3D펜으로 작품만들기를 돕는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



▲ 초청강사에게 코딩을 배우는 학생들

지난 9월 27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총주 소프트웨어 축제에서는 미래사회에 만연하게 이용될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체험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키트조립, 3D 프린터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3D펜으로 작품 만들기, VR, 코딩으로 자동차 움직이기 등이 있었다. 이 활동은 기술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피지컬 컴퓨

팅 동아리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는 정보를 가르치시는 김익호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있다. 평소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는 C언어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아오는 등 학생들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축제에서 동아리 학생들은 3D펜으로 작품

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4개의 활동은 전문인을 초청해 활동되었다. 동아리의 학생들은 약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축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3D펜이라는 기술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다 같이 활동한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했다. 동아리원 정의현 학생은 이에 대해 'IT산업에서 3D 펜으로 기계의 반복적인 활동을 편리하게 이용해 스스로

만들면서 창의력이 향상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의 부장 류지민 학생은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점도 많다고 했다. 소프트웨어 축제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기도 했지만 정리도 안 되고 복잡한 환경이었으며 진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리장인 류지민 학생은 3D펜 활동

을 하면서 시간이 적어서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축제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그 정도의 축제를 준비한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의 노력이 눈에 선하다. 앞으로도 피지컬 컴퓨팅 동아리의 활동은 계속 될 것이고 우리학교를 빛낼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 멋진 동아리이다.

-김철민 기자

과학 체험 학습



지난 8월 31일 학생들은 EXCO에서 개최되는 대구과학축전에 참여하였다.

대구과학축전은 여러 학교나 기관, 업체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과학 골든벨, 여러 대회들도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공연도 있었다.

부스는 유관기관체험관, 과학실험관, 메이커특별관, 창의

융합교육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유관기관체험관에는 대구지방기상청, 국립대구과학관 등에서 운영하는 부스로 이루어져있고, 대표적인 부스로는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찾아가는 환경교육, 빅뱅, 원소의 기원에서 가상현실까지 등이 있다. 과학실험관에서는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광섬유 클

레이 만들기부터 공기총 만들기처럼 초등학교생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부터 스트로보 효과놀이, 지층과 화석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 심화된 활동도 있었고 네온사인 만들기, DNA추출실험, 페이퍼 퍼즈 만들기 같은 고등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면서 실생활이나 인터넷에서 보았을 법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메이커특별관은 초, 중, 고등학생들

이 드론, 3D펜, 3D프린터를 이용하여 드론 낚시나 작품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였다. 창의융합교육관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업체 홍보를 하거나 로봇이나 드론 등을 이용하여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높았다.

대구과학축전의 개최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창의적 인재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과학관련 기관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과학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여러 대회나 축제가 다양한 지역에서 자주 열린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진우 기자

한라산을 정복한 1학년의 수학여행



▲ 한라산을 등반한 학생들과 선생님의 단체사진



▲ 제주도에 단체 사진을 찍는 학생들

신입생들은 가을을 맞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시끌벅적했고, 비행기 안도 역시 시끌벅적했다. 그렇게 약 2시간을 날아 제주도에 도착한 후 버스에 탑승하여 제주도의 첫 모습을 살펴보았다. 뷔페에서 밥을 먹은 후 숙소로 향하였다. 숙소에서 도착해서 모두 배정받은 방으로 들

어갔다. 2일 차에 천제연폭포를 보러 갔다. 보러 가는 길에 계단이 많아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보고 난 후는 전혀 반응들이 달랐다. 모두 멋있다며 단체 사진과 셀카를 찍으며 친구들과 좋은 기억을 남겼다. 점심은 제주 산 흑돼지 무한리필 집으로 가서 배불리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미로 공원으로 향

했다. 미로 속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도 하면서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숙소로 돌아가 꼭 쉬고 저녁을 먹었다. 그날 저녁에는비가 왔다. 3일차 일정에 한라산에 올라가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걱정을 뒤로 한 채 잠을 청하였다. 모두 기상했을 때에는 다행히도 비는 멈춰있었고, 한라산 입구에 도착해 보니 충분히 올라 갈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말라 있어서 도시락과 물은 받은 후 모두 등산을 시작하였다. 도시락을 먹은 곳은 한라산의 아름다운 꽃밭인 진달래 밭 주변이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점심을 먹은 후 내려갈 애들은 내려가고 백록담을 보고 싶은 애들은 끝까지 올라갔다. 정상인 백록담을 올라간 인원은 선생님을

포함해 150명쯤이었다. 안개가 끼어 있어 아름다운 백록담을 보진 못하였지만 중간중간 걷힌 안개 덕분에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모두 뿌듯해진 마음을 실은 채 하산을 하였다. 4일차,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김포 공항으로 돌아갔다. 비록 몸은 충주에 학생들의 마음은 제주도에 남아있을 것이다.

-권오성 기자

수련활동으로 단합된 2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괴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떠났다. 학생들이 미리 공지 받았던 일정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별 다른 문제없이, 큰 사고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충주고의 등장을 알리는 입소식은 멋지게 이루어졌다. 입소식에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지만 교가를 부를 때 특히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애교심을 가지고 교가를 알리고 하면 좋겠다.

이 후에도 지친 기색 없이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수련원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첫날의 활동은 도전 99초로 5가지 활동을 99초 안에 끝내는 것인데 8반만이 엄청난 단합력을 보이며 통과를 했다. 그 후에도 단합력을 기를 수 있는 모양만들기를 통해 식사 순서를 정하기

도 했다. 그렇게 첫날의 힘든 일정을 마치고 학생들은 단잠을 자고 다음 날 수련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두 번째 날 오전에는 총 3가지 활동에 참여했다. 창의적 문제풀기, 도미노, 난타를 통해 머리도 쓰고 몸도 쓰며 스트레스도 풀고 반 친구들 뿐 아니라 우리학교 전체가 단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오후에는 자신의 목표를 써서 줄에 걸어보고 각 반을 소개하는 포스터

를 만들었으며 마지막 밤을 뜨겁게 보내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준비해온 노래를 불렀고 장기자랑 후에는 흥겨운 노래 소리에 맞추어 춤도 추고 기차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그날 저녁 간식으로 치킨이 와서 학생들이 매우 좋아했다. 그날 저녁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자는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아쉬워하면서도 더욱 뜨겁게 보냈다.

세 번째 날에는 스

마트 이미지 추적을 통해 반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 사진을 남길 수 있었고 이 활동은 2반이 뛰어난 실력과 단합력을 보이며 1등을 하였다. 퇴소식은 입소식과 똑같이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 보였다. 이번 수련 활동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단합이 잘되는 충주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좋겠다.

-김철민 기자

공학 교수 초청 강연

지난 9월 26일 충주교생명과학실에서 공학교수초청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 교수님은 이과로 대학을 가기 원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중요한 점,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의 질문에 답할 때의 예시 등을 주제로 강연해주셨다. 교수님은 진로희망을

작성할 때 어느 한 직업을 특정 지으면 면접을 볼 때 힘들 수 있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본인의 진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학점을 지으면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나아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공학계열과 같이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 관련된 생거부를 작성해 나가다가

2학년, 3학년에 진로를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은 그 분야를 걸핍기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지만 자신은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화된 활동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했고’와 같

이 평범한 문장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평범한 문장이면 이 학생도 다른 학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소개서를 건너뛸 수 있는데 면접관의 눈을 사로잡으면 그것을 읽어볼 계기라도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 교수님은 대학교 면

접관을 해본 적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 공학계열 대입과 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을 학생들이 겪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진우 기자

OECD,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하다



▲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정석현(2학년)



▲ 미래 교육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회의 모습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우리 정부와 OECD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교육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의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논하는 자리로 이번으로 10회를 맞아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국내 학생들의 회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는데 필자 역시 회의에 참석하고 와 그곳에서 논의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기고한다.

우리는 교육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열쇠

라고 이야기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엄청난 교육열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한국 학생들은 OECD에서 주관하는 학생 학업 능력 평가(PISA)에서 언제나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OECD 꼴지에서 두 번째로 언제나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필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였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

부를 하느냐?’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이다.

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현재의 교육 현실에 대해 평가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평가 방식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적절한 정도의 평가는 필수적이지만 평가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능력을 향상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한다는 데에는 모든 이들이 뜻을 같이 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미래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OECD에서 수년 간 공들여서 조사한 ‘학업 능력과 체육 활동 시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되었다. OECD는 체육 활동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뇌 운동이 활성화되어 훨씬 나은 학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였다.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교육 현실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며 현재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많은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미래의 교육 환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석현 기자

학생의 미래가 있는 대학!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로고



▲ 부산대학교 캠퍼스 전경

부산대학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본교가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대학교이다. 광복 직후 경상남도는 5~6개의 대학설립 기성회를 합쳐 일제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조선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대학다운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조선미군정청 문교부에서 국립대학 설립을 건의해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설립기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문교부로부터 1946년 5월 15일 국립 부산대학교 설립인가를 받게 된 것이 부산대학교의 시작이었다. 이는 8.15 광복 이후 문교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최초의 국립종합대이기도 하다. 부산대학교는 4개의 특화된 캠퍼스로 구성된 복수 캠퍼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다른 대학교의 분교와는 다른 개념으로, 모든 캠퍼스가 본교로 취급받는 이원화 캠퍼스이다. 첫 번째 캠퍼스인 부산캠퍼스는 장전 캠퍼스라고도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에 소재한 대학의 메인캠퍼스이다. 종합 교육·연구 기능 강화 캠퍼스라는 이름이 있다. 두 번째 캠퍼스인 양산캠퍼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캠퍼스이며, 의·생명 특화 기능 강화 캠퍼스라는 이름이 있다. 이름에 맞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의생명과학도서관, 산학융복합센터가 존재하는 곳이다. 밀양캠퍼스는 경상남

도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에 조성된 캠퍼스로, 나노·바이오 특화 기능 강화 캠퍼스이다. 마지막으로 아미캠퍼스는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소재의 메디컬 캠퍼스이자, 부산대학교병원 본원이 있는 곳이다.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도심형 메디컬 기능 강화 캠퍼스로 불린다. 부산대학교의 입학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다. 수시는 논술,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지역인재), 학생부종합(학종전형, 지역인재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전형, 저소득층학생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기(실기전형, 농어촌학생전형, 특성화고교 출신자전형, 저소득층학생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sw특기자전형)가 있다. 정시는 수능전형이 있으며,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은 수시 2993명, 정시 1516명, 합계 4,509명이다.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13.76, 정시 3.58로, 경남대학교의 4.02, 3.22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수시전형 학과로는 의예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등이 있고 정시전형으로는 학석사통합과정(한의학과), 의류학과, 생명환경화학학과 등이 있다. 2019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과학과 인문대학의 주요 학과의 경우, 평균 2.5~3.0대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타난다. 경영학부의 경우, 3.11

이며 경제학부는 2.63을 기록하였다. 또한 영어교육과의 경우에는 1.95를 기록해 학교 내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학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문방송학과도 2.14를 기록해 타 학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대학의 주요 학과의 경우, 평균 3.0~3.5대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타난다. 가장 인기 있는 전기컴퓨터공학과와 수학과는 의예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등이 있고 정시전형으로는 학석사통합과정(한의학과), 의류학과, 생명환경화학학과 등이 있다. 2019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과학과 인문대학의 주요 학과의 경우, 평균 2.5~3.0대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타난다. 경영학부의 경우, 3.11

이며 경제학부는 2.63을 기록하였다. 또한 영어교육과의 경우에는 1.95를 기록해 학교 내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학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문방송학과도 2.14를 기록해 타 학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대학의 주요 학과의 경우, 평균 3.0~3.5대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타난다. 가장 인기 있는 전기컴퓨터공학과와 수학과는 의예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등이 있고 정시전형으로는 학석사통합과정(한의학과), 의류학과, 생명환경화학학과 등이 있다. 2019년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과학과 인문대학의 주요 학과의 경우, 평균 2.5~3.0대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나타난다. 경영학부의 경우, 3.11

-권준 기자

지원 학과	내신 등급	지원 학과	내신 등급
경영학부	3.11	전기컴퓨터공학과	2.82
경제학부	2.63	생명과학과	2.18
신문방송학과	2.14	수학교육과	1.95

<2019.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내신 등급>

다음 호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매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함께 안보상 우호 국가로 우대하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지난 7월 2일엔 일본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였고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 말을 통해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였다. 또 지난 7월 3일 sns 및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시되며 일본 불매 운동 여론이 확산되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였고,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원료 3가지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경제 보복이

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 보복이 아닌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의도와 목적은 직접 효과보다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불안감이 증가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비용도 올라가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불매운동을 하기보다 이 기업이 우익 활동을 해왔는지,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대해 정당한 사과를 하지 않고 무시하였는지 등에 대한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참 불매운동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잃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올바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돌아오기 전까지 불매운동은 계속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진우 기자

11.3

일제에 저항해 들고 일어난
아름다운 대한의 학생들
그들을 기억합니다



알립니다 <학교 신문 개선점>

예성에서는 보다 더 나은 예성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성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독자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 ◆ 접수 기간: ~12월 25일
- ◆ 투고 분량: A4 1쪽 내외
- ◆ 접수 방법: 카톡 또는 이메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社說

정보화·세계화 속의 한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어느덧 576년이 되었다. 훈민정음은 현존하는 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 훈민정음 즉 한글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는 세계 모든 문자를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진열해놓았는데 그 1위는 다름 아닌 한글이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즉 e스포츠 경기에서도 소통속도가 뛰어난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가 게임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글같이 빠르게 서로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인 방탄소년단 그들의 빌보드 차트 1위는 한글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관해서 이낙연 총리는 그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많은 우리나라의 K-POP 가수들은 한글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중이다. K-POP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한글의 세계화는 세종학당이라는 한글 교육 시설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방탄소년단 등 많은 사람들의 활약 덕분에 세종학당은 단 12년 만에 13곳에서 174곳으로 늘어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세계인이 배우는 그러한 한글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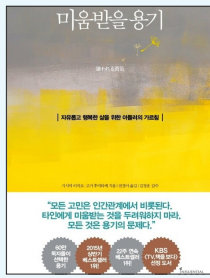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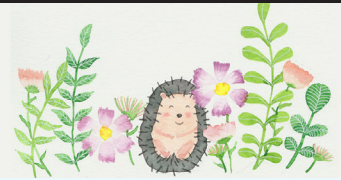
우리는 한글을 사용할 때 줄여 쓰거나 특정 인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등 엄청나게 많은 줄임말이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는 곧 다른 세대와의 소통능력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청소년 세대의 말을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

해서 세계가 인정한 우리말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민이 평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자부심을 갖고 우수성을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말은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이는 세계화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전통인 한복에서도 개량한복과 전통한복,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가 관심이 되기도 했었다. 개량한복이 나오게 된 것도 사람들이 전통한복을 쓰지 않고 그것의 불편함을 느끼고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한글에 대해서도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빠른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이 한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우리들이 한글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 회화를 배웠거나 원어민들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영어에도 줄임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가? 그들도 영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줄임말의 사용으로 세대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계화의 흐름에서 발맞춰 가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줄임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무작정 좋다는 것은 아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할 때는 예의를 지켜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글날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만큼은 한글 본연의 모습을 사랑해줌으로써 우리말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공부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한글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아름다운 한글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철민 기자



문화를 만나다



<책>

미움 받을 용기

아들러의 심리학을 파헤쳐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철학자는 그것을 대담해 주고 해석해주는 역할로 나온다. 철학자의 이론에 바탕에는 아들러의 심리학이 많은 영향이 끼치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한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 즉 과거의 일은 과거고 없는 일이다. 미래도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우린 지금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해준다. 이 책은 생소한 심리학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번 읽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책들과는 다르다. 여러 심리학 용어를 설명하며 이해시키고 변화시킨다는 느낌이다. 어렵게 말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유준상 기자



<영화>

신과함께 :죄와벌

“김자홍 씨께선,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화재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 김자홍에게 저승차사 해원맥과 덕춘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홍이 죽었다는 사실과 자홍이 오랜만에 나타난 귀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자홍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덕춘은 자홍을 귀인이라며 그를 지켜세운다. 차사들은 자신들의 환생을 위한 48번째 망자로 자홍의 환생을 확신하는데 자홍의 49일 동

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홍은 인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7개의 지옥에서의 재판을 보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별 생각없이 한 행동들도 누군가의 기억 한편에 남는 일일수도 있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자신의 평소 행동을 되돌아 보고 평소 행실을 바르게 하자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영화는 허구이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영화는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함께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이진우 기자

쉬어가는 시간 십자말풀이

■ 가로 풀이

1.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3.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얇게 썰어 맑은장국에 넣고 끓인 음식. 설날에 먹는 이것은 첨세병(添歲餅)나이를 더 먹는 떡이다. 4. 己亥. 육십갑자의 서른여섯째. “2019년은 황금돼지해인 ○○년입니다.” 6.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를 다룬 영화. 엄유나 감독. 유해진, 윤계상 주연으로 2019년 1월9일 개봉. 8. 현실적이기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려 봄. 10. 역대 한국 개봉영화 최초로 전국 1천만 관객을 넘긴 강우석 감독, 설경구 주연 영화. 11. 은어로 ‘미성년자’를 줄여 이르는 말. 13.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멍멍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 것에서 비롯됨. 15.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16. <스카이(SKY)캐슬>에서 한서진을 연기 배우. 18.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19. 팬톤에서 선정한 ‘2019

년 올해의 컬러’인 ‘리빙 코랄’(Living Coral)은 살아있는 ○○초의 색에서 영감을 받았다. 21. 드럼 연주자. ‘로저 테일러는 영국 그룹 퀸의 ○○○다.’ 22. 마르크스까지는 경제학서. 23.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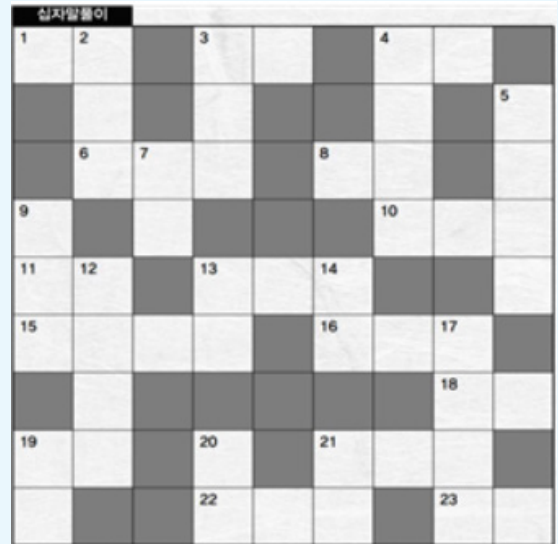
■ 세로 풀이

2. 말을 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하는 말. 3.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해 볶은 음식. 양념은 간장으로 하기도 하고, 간추장으로 하기도 한다. 4. 머리 부분에 타박상과 같은 충격을 받거나 약물 중독 따위로 이전의 어느 기간의 기억이 사라져 버리는 일. 또는 그런 병. 5. 차의 빠른 통행을 위하여 만든 차 전용의 도로. 7.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9.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12. 인류의 생활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려고

그 파괴의 원인을 밝히고 미리 막으며,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일. 13. 길게 뻗은 머리끝에 드리우는 장식용 형갈이나 끈. 14. 옷이나 신발 따위에 염색된 물감이 다른 부분으로 번지거나 다른 물건으로 배어듦. 17. 드라마 <스카이(SKY)캐슬>로 유행하게 된 말. “○○○○를 확 찢어버릴라.” 19.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걷는 일. 20. 형갈이나 강철로 띠처럼 만든 자. 21. 자율 항법 장치 때문에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

숙	수	무	책			분
숙			망	발		수
들				단	발	령
이	목		우		원	
	적	나	라		지	양
불	의		늪			조
	식	상		으	름	장

▲41호 답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충주고등학교
예성

발행인 교장 강광성 | 지도교사 조승현 | 편집
고문 남상웅 | 편집국장 정석현 | 논설주간 김
철민 | 기자 신영진 어윤준 유민상 유희종 정민
성 조범근 조세빈 권오성 권 준 유준상 이진우

독자 투고·기사 제보·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충주고예성'
cjhs.yeseong@gmail.com



본보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충주고등학교 2019